오늘 영광 상사화 축제 개막 15일 영광 불갑사 일원에 꽃무릇(상사화)이 만개해 관광객들이 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불갑사 일원에서는 16일부터 25일까지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과 호흡하는 전남도의회 현장 중심 생활 정치 강화한다

29일까지 제 365회 1차 정례회…쌀값·섬 택배비·생활임금보장 확대 등 현안 대책 논의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폭락하는 쌀값 뿐 아니라 섬 지역 택배비 경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업 피해 대책, 생활임금보장 확대 등 농·어업인과 도서지역, 열악한 저임금 노동자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등 현장 정치 행보가 두드러지면서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19일 간 예정된 '제 365회 1차 정례회' 기간 6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30~48명이 공동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국내 낙농산업 보호대책', '국내 조사료 정부정책 현실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 배치' 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5분 자유 발언 내용도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들로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인상 ▲생활임금 보장 확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 ▲섬 지역 택배비 경감 ▲지역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 등이다.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자유 발언을 한 송형곤(더민주·고흥 1) 의원은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들의 문화·복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시·군 농협 지부에서만 카드로 발급돼 장거리 거주자나 섬 지역 주민의 경우 불편하고 지원액도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하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종섭(더민주·여수 6) 의원은 "전남 22개 시·군 중 여수·목포·나주·해남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자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전남 시·군의 도입 확대가 절실하다"며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생활임금은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지자체가 일정 임금을 더 주는 제도로,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직원이나 출연기관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이다.

김문수(더민주·신안 1) 의원은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의 58%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물 생산 전국 1위 지역으로 김, 전복, 미역, 톳 등은 전국 수산물 수출액 1위인 지역인데, 내년 7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뤄질 경우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 대책과 별개로 전남 수산업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의준(더민주·완도 2)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2개 섬에 16만5000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 현실을 언급하면서 "택배업체들은 생활편익을 위한 택배비조차 적정 가격을 넘어선 특수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섬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민호(더민주·순천 6) 의원도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현장 목소리를 담은 5개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내놓았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등 도민과 호흡하는 생활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복합쇼핑몰 유치 본격 시동

순천시 등과 신대지구에 '스타필드' 추진…광주·전남 과열 우려

전남도가 지역 내 복합쇼핑몰 유치를 거들고 나섰다.

순천시의 광양경제자유구역 내 신대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유치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남해안권 관광벨트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전남도의원도 순천시가 염두에 둔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점을 염두에 둔 듯 도의회 정례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해 지원하고 나섰다.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에도 스타필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의 복합쇼핑몰 과열 경쟁 분위기도 감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내로 복합쇼핑몰 사업자인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와 실무 접촉을 통해 순천시 입점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순천시가 지난달 31일 순천시청에서 노관규 순천시장과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유치 사업에 뛰어들자 전남도가 힘을 보태고 나선 모양새다. 사업 대상 부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양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10만7000㎡)로, 순천시 소유지만 여태껏 사업자를 찾지 못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상업용지가 아닌 교육용 부지인 만큼 상업용지로 바꾸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 절차와 용도변경 절차 등 까다로운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다.

또 신세계 측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만큼 승용차로 1시간 이내에 위치한 순천에 같은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도 미지수라 광주·전남 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 유치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반드시 유치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돌입

시의회, 21일 환경공단 이사장…여성가족재단 등 4곳

광주시의회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등 민선 8기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본격 시작한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성환 전 동구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에는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어 26일에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열고 11월 14일에는 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33개 가운데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도덕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5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내고, 시장은 경과보고서에 담긴 장·단점을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각 7명의 인사위원으로 특위구성을 마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뽑기 위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 가을 개학기 맞아 학교 급식소 위생점검

19~30일 200곳

광주시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19일부터 30일까지 학교 내 집단급식소 등 20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초·중·고·특수학교 집단급식소는 17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19곳, 식품제조가공업은 3곳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교육청·자치구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개 반 29명이 투입되며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과 기구의 세척·소독 관리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급식용 조리식품, 조리도구 등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도구 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해 식품 안전성 여부도 확인한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에도 전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28곳에 대해 위생·방역 컨설팅을 실시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44곳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했다.

허경 광주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